NEXT
Next
Expert
Training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7년 12월, 벨기에)

2018.0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7년 12월 _주 벨기에 한국문화원 [배가브리엘]

□ 목차

No.	구분		내용	page
1	현지동향		브뤼헤의 〈디셈버 댄스 (December Dance)〉, 2017년 12월 7일부터 열흘간 개최	3
2			11~12월 연말, 다양한 예술축제 개최	5
3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P.A.R.T.S. / Performing Arts Research and Training Studios VZW	6
4			에이패스(아패스) /a.pass(Advanced Performance And Scenography Studies)	6
5		공간	브리지틴스 / Les Brigittines	7
6			라 발사민 / La Balsamine(Theatre la Balsamine)	8
7		축제 및 행사	월드 크리스마스 서커스 / World Christmas Circus (Wereldkerstcircus)	9

□ 현지동향

Ⅰ. 현지 동향 〈1〉			
유형	전시/축제	장르	공연예술/무용
관련링크	https://www.concertgebouw.be/en/sub/decemberdance		

브뤼헤의 〈디셈버 댄스 (December Dance)〉, 2017년 12월 7일부터 열흘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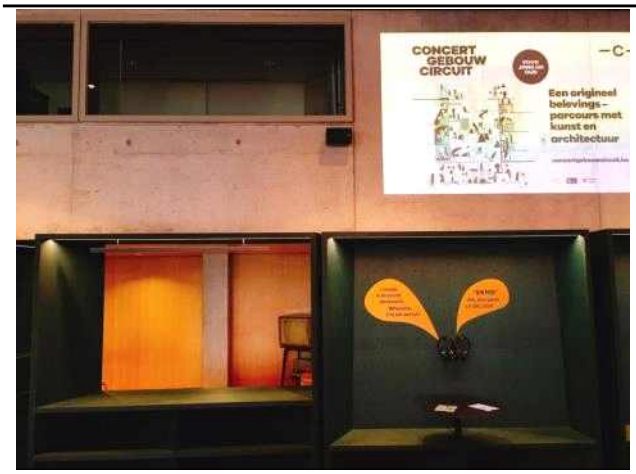
벨기에 브뤼헤(Brugge)에서는 매년 12월 국제적인 무용축제 〈디셈버 댄스(Decebmer Dance :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DD〉가 개최된다. 브뤼헤의 다양한 예술기관들이 참여하는 이 축제는 벨기에의 가장 중요한 무용축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브뤼헤 문화센터(Cultuurcentrum Brugge)와 콘체르트헤바우 극장(Concertgebouw)이 협력해 매년 12월 초 열흘 간 축제를 개최한다. 2007년 첫 개최 후 올해로 11회를 맞이, 초청 아티스트의 공연과 신진 아티스트의 쇼케이스가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DD의 큐레이터는 크리스티앙 리조(Christian Rizzo)가 맡았다. 크리스티앙 리조는 프랑스의 국립안무센터 중 하나인 몽펠리에 안무센터(ICI-CCN)의 예술감독 출신으로, 제롬 벨이나 라시드 우람단 등과 함께 손꼽히는 안무가이다. 시각예술을 전공한 후 록 뮤지션으로서 첫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패션 디자이너로, 무용수로, 안무가로 길을 바꾼다. 1996년 예술단체 '프레질어소시에이션(Fragile Association)'을 설립하면서 무용과 음악, 조형예술을 자유롭게 결합해 온 그가 큐레이터로 선정된 것은 과거 얀 파브르가 DD의 큐레이터 역할을 맡았을 때를 떠올리게 한다. 얀 파브르가 연출가, 화가, 작가, 디자이너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며 탈장르적 무대를 제공해 왔듯이, 인간의 신체를 디자인적 요소 중 일부로 고려해 온 크리스티앙 리조는 2017년 DD의 기조를 "춤의 경계를 초월하는(Beyond the boundaries of dance)" 것으로 삼았다.

12월 7일 콘체르트헤바우에서 열리는 첫 공연은 크리스티앙 리조의 〈이안 신드롬(Le Syndrom Ian)〉으로, 가수 이안 커티스(Ian Curtis)가 참여해 디스코, 펑크 댄스와 화려한 시각효과를 한데 섞는다. 이후 바니아 바노(Vania Vaneau), 소로 다라비(Sorour Darami), 오하드 나하린(Ohad Naharin)과 리옹오페라발레단 등이 12월 17일까지 공연과 워크샵을 제공한다. 춤 이상의 춤, 인간의 신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실험하는 경험을 관객에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꾸려진 공연들이다. 일례로 리옹 발레단의 〈두번째 디테일(The Second Detail) / 회전(Turning)〉은 발레에 기반한 까다로운 테크닉으로 이름이 높은 윌리엄 포사이스(William Forsythe)의 작품이다. 이번에도 그는 저글링이나 핸드볼, 민속무용 등 다양한 원천에 영감을 받아 기존의 고전 발레적인 움직임 - 아라베스크, 애티튜드, 피루엣 등을 해체해 보여준다. 발레 드 로렌(Ballet de Lorraine)의 〈요소 I (Elements I)〉와 〈혁명을 위한 초현실주의(Le Surrealisme au service de la Revolution)〉 역시 그 제목에서 느껴지듯 무용수들의 몸을 하나의 기호 또는 구성요소로 간주하며 여러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불안정한(Stifling)", "괴이한(Bizarre)", "범상치 않은(Extraordinary)" 등의 수식어가 전체 프로그램을 관통하고,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은 크리스티앙 리조가 선정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보다 실험적인 공연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전시와 콘서트도 함께 열린다. 일렉트로닉 밴드 세큘(Cercueil)은 데이비드 린치의 컬트 영화 〈이레이저 헤드〉 사운드트랙을 연주하며, 전시 〈프레임 안에서의 눈의 호흡(La Respiration des yeux dans le cadre)〉가 브뤼헤의 '드 본드(De Bond)'에서 열린다. 사진작가이자 영화제작자 도로시 스미스(Dorothee Smith)의 사진, 크리스티앙 리조의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내년 1월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큐레이터에서부터 참가 단체의 면면에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12월 초 〈디셈버 댄스〉는 유럽 현대무용의 혁신적 일면을 제시한다.

(사진 1-4 : 디셈버댄스 개최기관 콘체르트해바우 / 사진 5-7 : 디셈버댄스 워크숍 및 프로그램)



Ⅰ. 현지 동향 〈2〉			
유형	전시/축제	장르	공연예술
관련링크	BE Film : befilmfestival.be / Le Jour Le Plus Court : lejourlepluscourt.be Noel au Theatre : ctej.be / Zebrawood : www.zebrawoods.be		

11~12월 연말, 다양한 예술축제 개최

12월을 맞아 대부분의 극장들이 내년 시즌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연말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는 중이다. 11월에는 주로 컨템포러리 연극, 무용 등 현대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를 도모하는 축제들이 개최되었다면,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휴 동안 일반 관객들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다수 열릴 예정이다.

얼마 전에는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된 복합예술축제 〈Next〉가 막을 내렸다. 코르트레이크, 투르네 등 벨기에와 프랑스 4개 도시의 다수 예술기관이 참여하여,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국가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워크샵과 토론 및 다양한 공연이 전개되었다. 기성 및 신진아티스트가 모두 자유롭게 참여하는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또한 갖추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벨기에, 스코틀랜드, 프랑스에서 온 총 36명의 청소년들이 “Teenexters” 행사에 참여하여 현대예술을 체험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간 접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 리에주에서 열린 복합예술축제 〈IMPACT〉 역시 흥미로운 구성을 보여주었다. 〈IMPACT〉는 그 이름(공연예술 및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국제 미팅, International Meeting for Performance Arts and Creative Technology)에서 알 수 있듯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 및 다양한 시청각적 혁신기술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행사다. 리에주 극장을 주축으로 예술과 기술의 학문적 또는 실질적 접점을 모색하는 행사가 약 한 달 간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브뤼셀의 현대예술기관 베어사우베르가 주최한 〈Batard Festival〉과 〈Feminism is Future〉 축제 역시 컨템포러리 아트에 중심을 두고 여러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12월부터는 한결 폭넓은 관객층을 위한 축제가 여럿 열린다. 우선 영화축제로 〈BE film Festival〉과 〈가장 짧은 날(Le Jour le Plus Court)〉을 꼽을 수 있다. 보자르의 시네마테크에서 열리는 〈BE Film Festival〉은 벨기에 영화를 위한 축제다.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벨기에 감독이 제작한, 벨기에 배우가 출연한, 또는 벨기에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상영한다. 벨기에의 감독이자 각본가인 핀 트로흐의 베니스영화제 수상작 〈홈(Home)〉이 마스터클래스 상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사무엘 틸만의 〈그림자의 일부(Une part d’ombre)〉, 루카스 벨보의 〈디스 이즈 아워 랜드(Chez Nous)〉, 필립 반 리우의 〈인 시리아(Insyriated)〉가 초청작으로 선정, 여러 감독과 제작자, 배우들이 관객과의 만남을 진행한다. 한편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동지(12월 21일)에 열리는 행사인 〈가장 짧은 날〉은 브뤼셀 및 기타 프랑스어권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축제로, 다양한 단편영화들을 관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원래 프랑스에서 출발한 축제가 지금은 브뤼셀을 포함한 프랑스어 문화권 전역에서 현지의 극장, 아티스트, 학교 및 기타 예술기관과 협업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극장의 크리스마스(Noel au Theatre)〉를 빌어, 브뤼셀의 여러 극장에서는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2017년에 열렸던 아동극들을 다시 제공한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행사로 9개 장소에서 총 22개 작품이 상연되며, “1살부터 100살까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용, 음악, 인형극 등을 포함한다. 12월 27일부터 1월 7일까지 열리는 음악 축제 〈제브라우드(Zebrawood)〉 역시 눈여겨 볼 만하다. 겐트에서 열리는 음악축제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클래식과 펑크, 월드뮤직을 포괄하며 여러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이외에도 브뤼셀 곳곳 성당에서는 〈합창 페스티벌(성 미카엘과 구아달라 성당)〉, 〈그레고리안 성가 축제〉 등과 같은 소규모 음악행사도 연다. 이처럼 11월 다양한 현대예술축제가 진행, 막을 내린 후 연말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축제들이 그 자리를 메울 예정이다.

□ 문화예술 디렉토리

Ⅰ.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 및 단체

기관명	**P.A.R.T.S.**		
유형	기관/학교	장르	공연예술/무용
운영주체	-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94년
기관현황	브뤼셀 포레스트 지역, 학교 및 로사스무용단 소재		
홈페이지	https://parts.be		

P.A.R.T.S. (Performing Arts Research and Training Studios VZW)는 1994년에 안무가 안느 테레사 드 케에르스마커가 설립한 현대무용학교로서, 무용 및 기타 공연예술 장르에 대한 교육과 리서치 실시를 목표로 두 종류의 커리큘럼(3년제 트레이닝 코스, 1년 이상 리서치 코스)을 제공 중이다.

P.A.R.T.S는 모리스 베자르가 설립했던 현대무용학교 무드라(Mudra)가 폐교한 후 벨기에의 대표적 무용기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전 세계에서 학생을 선발한 후 설립자 안느 테레사 드 케에르스마커의 “융합장르적” 기조에 맞춰 무용/음악/연극 등을 총체적으로 교육한다. 로사스 무용단을 비롯해 넓은 외연을 갖추고 있으며, 학내에 컨템포러리 뮤직 앙상블 ‘익투스’, 공연예술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 브뤼셀’이 함께 있어 아티스트 간 협업을 장려한다. 즉 P.A.R.T.S는 벨기에의 현대무용계에 있어 일종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졸업생은 벨기에 국내외 컴퍼니(로사스, 울티마베즈, 니드컴퍼니, 피나바우쉬, 트리샤브라운 등)로 진출하거나 독자적인 작품을 발표하는 등 관련 예술계에서 활동 중이다. 졸업생으로 안무가 다니엘 리네한, 아르코 렌츠 등이 있다.

*[TIP] P.A.R.T.S의 설립자 안느 테레사 드 케에르스마커는 1980년대 벨기에 현대무용 1세대로서, 벨기에 무용계에 전환점을 마련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특히 1983년 로사스(Rosas) 무용단을 꾸려 〈로사스는 로사스를 춤춘다(Rosas danst Rosas)〉, 〈드러밍(Drumming)〉 등 혁신적인 작품을 발표하며 벨기에를 현대무용의 중심지로 재 부상시키는 데 일조했다.P.A.R.T.S는 민간교육단체로서 벨기에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BA/MA)를 수여하지는 않으나, 수준 높은 교육으로 벨기에 및 유럽 전체에서 손꼽는 현대무용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유럽의 다수 현대무용기관(네덜란드 ‘스프링댄스’, 프랑스 ‘CDC 툴루즈’) 등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관 및 단체

기관명	**a.pass**		
유형	학교/기관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99년
기관현황	브뤼셀 몰렌벡생장 지구에 학교 소재		
홈페이지	http://apass.be		

a.pass (에이패스 또는 아패스; Advanced Performance And Scenography Studies)는 공연예술의 연구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1999년 앤트워프에서 다수의 시노그래퍼(Scenographer)들이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공연예술에의 국제적/예술적/학문적 접근을 장려하는 기관으로 정착하여 현재는 후(後)석사(Post-master, 1년) 프로그램과 박사(PhD, 미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pass는 다양한 장르 간의 융합 또는 탈장르적인 접근(Collaboration and Trans-Disciplinarity)을 지향, 장려하고 있으며 소속 학생은 학교의 비전에 부합하는 리서치 프로젝트와 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연구 과정에 있어 타 장르 종사 학생과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은 토론과 연구를 병행하며, 졸업을 앞두고 최종 결과를 공유하는 워크샵을 가진다. 특히 a.pass는 공연 등 작품 제작과 실연을 목표하는 여타 교육기관과 달리 학문적 연구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공연예술이 포섭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사회학, 경제학, 인류학적

주제 등)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토의 실시 및 그 방법론의 축적을 목표하고 있다.

(사진 1, 2 : 에이패스 내부/외부)

* TIP : a.pass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가 아닌 "연구기관"으로서의 학교를 지향하며, 학생 또는 그 소속 연구원이 기한 내 심도 있는 리서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타 장르의 연구원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공간〉

공간

공간명	**Les Brigittines**		
유형	극장/공간	장르	공연예술/무용
운영주체	벨론 브리지틴(Bellone Brigittines, 비영리단체)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663
공간현황	메인 홀, 메조(Mezzo), 스튜디오(Studio) 및 아티스트 작업공간, 레지던시 보유		
홈페이지	http://www.brigittines.be/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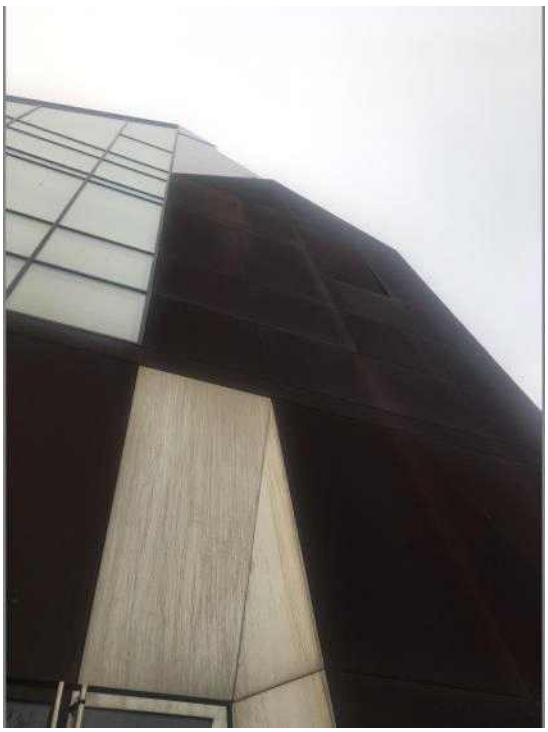
Les Brigittines(브리지틴스)는 현대무용을 전폭적으로 지원 및 상연하는 예술기관으로서 "Playhouse for Movement"라는 부칭을 가지고 있다. 1663년에 건축, 성당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브뤼셀 시가 구매한 후 개축하였고, 1970년대 후반부터 예술작품을 상연하기 시작해 지금은 현대무용 전문 극장으로 자리 잡았다.

성당 내 메인 홀 외에도 "메조(Mezz)", "스튜디오(Studio)" 및 아티스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다수 갖추고 있어 많은 현대무용가, 뮤지션 등이 레지던시 아티스트로 소속되어 있다. 매년 현대무용작품의 자체 제작과 아티스트를 위한 레지던시 운영, 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각지 파트너 레지던시 간 국제 교류 및 축제 진행 등이 끊임없이 진행되며, 2년에 한번 〈In Movement〉 페스티벌을 개최해 벨기에 로컬 무용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브뤼셀 시의 현대무용 및 예술기관(Contemporary Art Center for Movement)"으로 불리는 만큼, 프랑스어권 위주 브뤼셀 로컬 무용가에게 공간 및 상연기회 제공이 최우선이다. 브뤼셀 내 현대무용계 지원을 위해 마홀르(Marolles) 지역 아티스트들과 프로젝트("Participative project")를 진행하고, 브뤼셀 연고 교육기관 ULB 및 P.A.R.T.S와 함께 워크샵을 진행한다.

즉 Les Brigittines는 전적으로 브뤼셀의 현대 무용가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별도의 파트너십 하 진행되는 현대예술행사(컨템포러리 뮤직 콘서트 등)를 제외하고는 타 장르의 공연은 거의 하지 않는다. 관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업적 목적의 세미나용 대관, 리셉션용 대관 등을 제외하고는 예술행사를 위한 대관도 하지 않는다. 즉 장소의 특이성과 현대무용 지원 기관으로서의 고유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벨기에 로컬 무용가들의 작품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극장이다.

(사진 1-3 : 브리지틴스 외경)



[tip] Les Brigittines가 개최하는 축제는 로컬 아티스트들을 위한 〈In Movement(2~3월)〉 비엔날레와 해외 아티스트들을 위한 〈International Festival(9월)〉 축제로 나뉜다. 2018년 〈In Movement〉에는 담드픽, 빔 반데키부스 등 벨기에 유명 현대무용단체와 아티스트가 다수 참여하는데, Les Brigittines는 "특정한 테마를 다루는 실험적 작품"이라는 기준에 따라 축제를 위한 작품을 선정한다. 동일한 기준은 〈International Festival〉 축제에도 적용되며, 2017년 가을에는 〈The Power of the Night〉라는 제목으로 베라 만테로, 파크 컴퍼니 등이 공연하였다.

공간

공간명	**La Balsamine (Theatre la Balsamine)**		
유형	극장/공간	장르	공연예술/무용
운영주체	메인 홀(Amiphitheatre), 스튜디오(Studio), 리셉션 홀 및 작업공간		
소재지	2017.10.6.~2017.10.20	설립년도	1974
공간현황	브뤼셀, 벨기에		
홈페이지	http://balsamine.be		

La Balsamine(라 발사민)은 브뤼셀 스하르베크 지구에 위치한 극장으로, 1974년 한 연출가(Martine Wijckaert)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나 1981년부터 기관화되어 컨템포러리 연극을 위한 기관으로 정착하였다. 2001년 현재의 모양을 갖춘 후 지금은 다양한 현대예술작품을 선정해 상연하는 극장이 되었다.

La Balsamine은 개방성과 실험성을 지향하며, 현대연극, 비주얼아트, 음악과 무용 공연 등을 상

연하는 대형 홀(Ampitheatre)과 스튜디오(Studio) 이외에도 작업 공간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극장의 자체 작품 제작 및 극장 연계 아티스트(Associated artists)의 제작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커뮤니티의 예술 활동 진작을 위해 관객 참여형 교육이나 학생 워크샵 등도 실시하고 있다

왈로니-브뤼셀 연합을 비롯한 다수 프랑스어권 예술기관(왈로니-브뤼셀 연합, 프랑스어문화권위원회 안무연합(Choreographic stages network of the French-speaking community commission(COCOF), 왈로니-브뤼셀 인터내셔널, 왈로니-브뤼셀 연극/무용 등)과 파트너 관계로 지원금을 받아 아티스트들의 제작을 돕는다. 또한 벨기에 최대의 예술축제 중 하나인 쿤스텐페스티벌의 파트너 기관이기도 하여, 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극장이다.

(사진 1 : 발사민 외경)

[Tip] 처음 연극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한 Martine Wijckaert는 1994년부터 극장 운영에서 물러나 지금은 연계 아티스트(Associated artists)로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수의 극작가와 안무가, 시각예술가가 La Balsamine의 공간에서 작업 중으로, 극장은 다양성과 실험성 및 개방성을 지향하며 작업을 지원한다.

Ⅲ. 문화예술 디렉토리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World Christmas Circus (Wereldkerstcircus)**		
유형	축제/행사	장르	서커스/공연예술
운영주체	암스테르담 카레 왕립극장 (Koninklijk Theatre Carre)		
개최시기	2017.12.21.~2018.1.7.	시작년도	1985
개최도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참가규모	2016년 약 5만 명 이상 참관 및 120명 아티스트 참가		
홈페이지	https://carre.nl/voorstelling/wereldkerstcircus		

축제 및 행사

매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카레 왕립극장(Koninklijk Theatre Carre)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서커스 축제이다. “서커스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해 오직 서커스만을 주제로 삼고 약 3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진행된다. 세계 서커스 축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축제로 손꼽히며, 각지의 아티스트 및 단체들이 참여해 무대를 선보인다. 원래 카레 왕립극장이 서커스 전용극장으로 설립되었던 만큼, 이 축제기간 동안에는 극장의 모든 설비 및 구조가 서커스 공연에 적합하게끔 재편된다.

1887년 극장을 설립한 오스카 카레(Oscar Carre)는 왕립 네덜란드 서커스(Royal Dutchircus)를 조직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후 극장은 주로 연극, 콘서트 등을 상연하다가 점차 겨울 시즌 동안 관객들에게 서커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후 건물이 재건되고 1985년부터 서커스 축제가 시작되면서, 축제는 세계 정상의 서커스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로 자리잡는다. 올해로 33회를 맞이한 행사의 주제는 “광대(Clowns)”로, 전통적인 광대극에서부터 컨템포러리 광대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나코의 서커스 드 몬테카를로, 프랑스의 세계서커스축제 등에서 수상한 제멘 슈스터(일명 “Housche-ma-Housche”)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국내외의 서커스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석하며, 카레 극장이 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로서 러시아, 베트남, 중국, 북한, 남아프리카의 서커스단도 참여한 바 있다. 암스테르담의 중요한 문화적 전통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행사이다. [TIP] 아크로바틱, 동물 묘기, 자전거 타기, 저글링, 광대 코미디 등 다양한 서커스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축제 기간 동안 거의 만석을 기록한다. 150년 역사의 미국 서커스단 ‘링글링 브라더스’를 비롯해 세계 서커스 축제의 수상자들이 한데 모여온 자리로 유명하다. 카레 극장은 서커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장으로, 지금은 연극과 뮤지컬, 콘서트, 카바레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지만 역시 서커스로 가장 유명하며 1087년에 왕실로부터 인증을 받아 “카레 왕립극장”으로 개칭하였다.